

“우리 꽃 ‘무궁화’ 더욱 사랑하고 널리 알릴 것”

전주시 활성화 간담회 개최 무궁화 화단 정화활동 펼쳐

전주시가 무궁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시민단체와 머리를 맞췄다.

시는 10일 서곡 모퉁지공원 내 도서관 앞에서 무궁화를 사랑하는 애국화 봉사단, 천년전주 푸른도시추진위원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와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궁화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모퉁지공원과 인근 문학대공원에 조성된 무궁화 화단의 고사한 가지를 정비하고 쓰레기 수거 등 정화활동을 펼쳤다.

또한, 해마다 조금씩 조성해온 무궁화에 이름표를 달아줬다. 이는 꽃 색깔에 따라 6종류(백단심, 적단심계 등)로 구분되는 무궁화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6000개의 이름표를 제작해 무궁화 주변에 부착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무궁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학대 공원에 무궁화단지를 조성하자는 의견과 무궁화를 여러 곳에 확대 식재해 홍보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방법이 제시됐다.



전주시는 10일 서곡 모퉁지공원 내 도서관 앞에서 무궁화를 사랑하는 애국화 봉사단, 천년전주 푸른도시추진위원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와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궁화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애국화 봉사단 관계자는 “무궁화에 대해 잘 모르거나, 혹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무궁화를 대하는 시민들이 많아 정확하게 나라꽃을 알리는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우리나라 꽃을 더욱 사랑하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데 전주시 차원에서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무주경찰서, 하계 야영훈련 실시

무주경찰서는 10일 덕유산 국립공원에서 112 타격대원 등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계 야영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그간 경찰작전 업무, 집회시위 경비, 미아·자살의심자 수색 등 각종 치안업무 보조에 고생하는 타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준비했다.

이번 하계야영훈련은 무주군의 관광명소인 무주머루와인 동굴, 반디랜드 체험, 계곡 물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그간 쌓였던 피로를 풀고 타격대원 상호 유대감과 친밀감을 쌓으며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었다.

전역을 앞두고 있는 정모 수경은 “2년 가까이 복무생활을 했지만 이번 무주서의 훈련만큼 활기차고 즐거웠던 적은 없었다”며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내령민 서장은 “경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친절하고 낮은 자세로 시민을 대하고 남은 복무기간 동안 보람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산경찰서, 범죄 피해 예방 기여 용감한 시민 감사장 전달

전주완산경찰서는 10일 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한 용감한 시민 강모(50)씨에게 감사장과 위로금을 전달했다.

강모씨는 지난 7월 19일 퇴근하기 위해 귀가하던 중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수상한 남자가 여자를 따라가는 것을 보고 이를 수상히 여겨 뒤에서 인기척을 내며 뛰따라가는 도중 피의자가 예리한 흉기로 안면 등을 찌르고 도주했다.

이로 인해 강모씨는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었다.

강형수 완산서장은 “용감한 시민 덕분에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상민 기자

완주 용진읍 지사체, 전북투어패스 구입 아동시설에 전달

완주 용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전북투어패스카드를 구입, 지역내 아동 시설에 전달했다.

10일 완주군은 용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전북투어패스 76장을 구입해 이산모자원, 지역아동센터에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백용복 용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이산모자원을 통해 자녀와 얼마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용진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는 여름방학동안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협의체를 통해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 같아 뿌듯하고, 앞으로 위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40여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오는 17일 완주 휴시네마를 찾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향유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임실군 덕치면, 자연민과 함께 꽃길 조성 ‘구슬땀’

임실군 덕치면은 지역민과 함께 꽃길조성에 구슬땀을 흘렸다. 지난 9월부터 10일까지 물우마를 부녀회원 20여명은 마을진입로에서 월과정까지 자전거도로 약 2km 구간에 코스모스 5만주를 식재했다.

또한 낭률과 잡초를 제거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했다.

앞으로 제조작업, 비료주기, 주변 환경 정화활동 등 지속적인 관리로 지역민과 방문객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09년 11월 25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7400016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호송촌)

발행·편집장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전무 겸 편집국장 김관춘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388-6874	남원지사 832-3886	고창지사 563-6888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산지사 272-9417	순천지사 256-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호지사 010-9845-9335	광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832-0955	정읍지사 538-3787
	군산지사 010-6789-0338	순창지사 853-0444	장수지사 010-3882-9157
	익산지사 859-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3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군산시 조촌동 조경한마음협의체, 사랑의 밀반찬 전달

군산시 조촌동 조경한마음협의체(민간위원장 안대수)는 10일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정과 저소득 취약가정을 대상으로 사랑의 밀반찬 나눔행사를 펼쳤다. 밀반찬 지원 사업은 결식우려가 있는 20세대를 선정해 8월부터 12월까지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에 영양 가득한 밀반찬을 전달하는 나눔 사업이다. 자원봉사자를 통해 대상자의 주거환경을 살피고 예로사항을 청취하여 저소득 계층의 정서적지지 및 복지욕구를 확인하는 복지모니터링 역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밀반찬을 전달받은 한 수혜자는 “몸이 불편해 반찬을 조리해 먹는 게 힘들었는데 김치, 장조림, 나물 등 다양한 밀반찬을 지원해 준 것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군산=김관춘 기자

완주서 화산파출소 신축에 따른 사무실 임시이전 홍보

완주경찰서 화산파출소(소장 양수성 경감)는 최근 화산면사무소에서 개최된 이장단회의에 참석 화산파출소 신축에 따른 안내와 주민협조를 구했다.

화산파출소는 지난 1984년 건축되어 지역치안 거점으로 활용되어오던 33년 만에 재 건축되게 되었다.

신축공사는 오는 21일 철거를 시작으로 12월 중순에 준공 예정이며 화산파출소는 17일 부터 경천파출소로 임시 이전한다.

양수성 화산파출소장은 파출소 신축과 관계없이 순찰 및 신고출동 등 지역경찰 업무는 변함없이 추진되며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민협조를 당부했다. /김민근 기자

익산경찰서, 이륜차 폭주행위 근절 특별단속 나서

익산경찰서가 10일, 광복절을 맞아 14일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교통위법·시민불안을 야기하는 이륜차 폭주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은 관내 주요 폭주행위 예상지역에서 이뤄지며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구조변경, 굉음유발, 인도주행, 신호위반, 안전모미착용, 무면허운전 등이다.

노경우 경비교통과장은 “익산 관내에서 집단 폭주행위는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심야시간대 과속(굉음유발)·난폭운전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만큼 폭주행위가 발생될 수 있는 분위기를 사전 차단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2대 이상의 차량·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굉음을 울리며 차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목격시 112로 신고해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대간을 만나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 백두대간 역사관
- 3D 애니메이션관
- 어드벤처 라이더관
- 5D 서클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린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권역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클영상

남원시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